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회, 정부 및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주요 인사 2백여 명 참석



신년인사회 참석 주요 인사. (1열 왼쪽부터)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유동수 국회의원, 최연혜 국회의원,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이채익 국회의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정근모 KINGS 국제자문위원장, 이종훈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명예회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열 왼쪽부터)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홍성주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송명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하봉수 한국전력공사 해외부사장 직무대행,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나기용 두산중공업 원자력BG 부사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월 12일(금) 7시 20분 웨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이라는 테마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 정부 및 산·학·연의 주요 관계자, 원자력계 원로 등 2백여명이 참석하였다.

신년인사회는 참석 인사 간 신년 하례와 함께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의 신년사, 이채익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최연혜 국회의원의 새해 덕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신년 인사, 그리고 정근모 KINGS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이종훈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명예회장(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건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천명되면서 원자력산업계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자력발전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에너지 분야의 대변혁이 있었지만, 원전은 주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 생각한다."며 "간헐성 에너지로 주식인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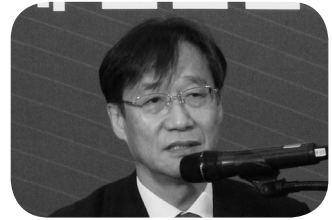
유동수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원자력계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등을 성찰하는 시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이재익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최연혜 국회의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년 축하떡 나눔



신년인사회 전경

간이었다.”고 말하고 “원전의 위험 여부가 아닌 원자력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 한해를 국민적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의원은 “과거 학창시절에는 정전·단전이 잦아서 양초를 사다 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전기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사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전력 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지한다면 원자력계가 지난해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올해는 원자력의 R&D사업을 통해 안전, 타분야와의 융합 등 종합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원자력계가 국민, 타산업, 외국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올 한해는 신고리 4호기와 UAE 바라카 1호기 준공 등 원자력계의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